"희망 심어주는 감로수 되길"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보현회, 낙산사에 지하수 보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내 봉사모임인 보현회(회장 정인악)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인악 회장(남양사 대표이사)을 비롯해 구자선 (주)태우주택 회장 등 보현회 회원 40여명은 11월 18일, 지난해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각 대부분을 잃은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보현회가 낙산사 대중과 불자, 참배객을 위해 개발한 지하암반수 관정을 기증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낙산사에는 아직도 화마피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법당인 원통보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이 있던 자리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파헤쳐져 있었고 울창했던 숲은 황량한 야산으로 변했다. 옛 명성은 간데없고 화재진압용 소방차량만이 1년7개월 전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형화재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낙산사로서는 보현회의 지하수 기증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크고 작은 도움이 절실한 탓이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보현회가 기증한 지하수 관정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감로수"라고 극찬했다.

낙산사의 지하수 관정 개발은 국내 유명 생수회사인 (주)산수음료 김태룡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보현회 재정담당 부회장인 김대표는 성지순례차 낙산사에 들렀다가 물이 귀하다는 사정을 듣고 지하수를 개발해주자고 보현회에 발의했고, 보현회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김태룡 대표는 산수음료 지하수개발팀을 낙산사로 파견했고, (주)제일지하수개발, (주)미래생활환경연구원, 관동판넬, 양양군상수도사업소가 동참했다.

구자선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장(맨 왼쪽)과 김태룡 산수음료 대표이사(오른쪽)가 낙산사 총무국장 무문 스님에게 관정 기증서를 전달했다.

보타전 앞 설치…수질검사 거쳐 '맛있는 물' 판정
식수 사용시 하루 2만5천명 마실 물 확보
매년 5~6곳 사찰에 무료 개발 계획도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낙산사의 지리적 여건상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하수 개발은 당초 취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높았다.

바다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보타전 앞을 자리로 정하고 3개월여에 걸친 공사 끝에 하루 227명이 사용할 수 있는 318.5드럼의 지하수를 얻는데 성공했다. 생활용수가 아닌 식수로 사용한다면 2만55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수질검사기관인 미래생활환경연구원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류 등의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본 후생성 물연구회에서 설정한 맛있는 물의 각종 요건을 두루 갖췄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보현회가 기증한 천연암반수 관정은 시공에서도 생수업체에서 운영하는 생수공장의 지하수 관정과 같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그라우팅처리는 물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자재를 스테인리스로 사용했다.

기증식에서 보현회 회원들은 지하수 관정이 낙산사 대중과 낙산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감로수가 되기를 발원했다. 정인악 회장은 "지식으로 불교를 많이 아는 불자가 되기보다는 대행으로써 세상을 보살피는 보현보살이 되어 중생을 위한 회향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보현회가 사찰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준 사례는 남양주 불암사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전까지 불암사는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수를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암사는 보현회의 지하수 개발로 사찰 대중과 신도, 참배객은 물론 등산객에까지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불암사와 낙산사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오래된 사찰일수록 우물이 말라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보현회는 2007년부터 매년 수돗물이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5~6곳의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를 개발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현회는 관정이 필요한 사찰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찰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차례의 관정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김태룡 산수음료 대표는 "탐방객이 많아지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사찰의 수질이 많이 나빠졌는데도 비용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현회는 전 공정을 책임지고 일체의 사찰부담 없이 관정을 개발해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02)2254-1477

글 · 사진/양양=박봉영 기자

낙산사 관정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김태룡 대표가 지하수를 시음하고 있다.

붇다의 경제학 (21)

같을 수 없음의 진리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에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정권이 바로 그 대다수 국민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정권이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정책적 실험을 했다는 고백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이제 보통의 한국인이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부동산 정책
연기법칙과 현실 직시 못한 정책의 결과
정부는 노력하는 사람 위한 경제 구축해야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도 아니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 때문도 아니고 명백한 정책적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현 정권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는 연기의 진리, 인과의 진리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다.

수많은 세월의 업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선천적 능력, 현생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중생들과의 그 끝없이 얽힌 인연들, 그리고 본인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생에서 비록 똑 같은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태어난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현 정권은 그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억지로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기의 진리를 깨치고 실행하기는커녕 부정하고 다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혹시 현 정권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평등한 경제적 삶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과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연기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연기의 법칙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명백한 이 '같을 수 없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서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물론 다 같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칭송받아야할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말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도 잡으라는 말처럼 공허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음을 20세기의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현 정부가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노력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사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전해 주었다. 정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국민을 과소평가하는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황차

가격: 4만원

녹차 잎을 50% 발효한 황차는 황금색을 띠며, 발효차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납니다.
녹차와 달리 황차는 많이 마시거나 빈속에 마셔도 속쓰림이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속이 냉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황차는 몸에서 중단전 부위의 막힘을 열어 하단전과 상단전의 교통이 수월하도록 돕는 상하불교(上下不交)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찰재정 위기 해법은?
실천승가회 30일 세미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성관 · 효림)가 주최하는 사찰경영에 관한 두번째 세미나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찰 운영 진단과 대안 제시를 위주로 했던 1차 세미나와 달리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사찰 재정 운영 및 확충방안과 선진사례 제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종단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 만큼이나 개별 사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사찰의 수입구조와 특성화된 사찰의 수입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등 사찰의 재정구조를 다원화하는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원 재정의 위기!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의 기조발제와 법안 스님(금선사 주지), 정만 스님(조계종 재무부장), 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내외 제도적 개선 방향' '신도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대안' 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02)725-4277 박봉영 기자

세로 88 cm × 가로 58cm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 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